

# 주일 예배 순서

- 성령강림 후 제6주 -

- 조용한 기도 (Silent Prayer) ..... 시편 98:1-4 ..... 다함께
- 찬 송 (Opening Hymn) ..... 43장(새 40장) ..... 다함께
- 교독문 (Responsive Reading) ..... 새 22번(스크린 참조) ..... 다함께
- 공동기도 (Prayer) ..... .....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범사에 알게 하시어 감사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저희 마음의 눈을 밝히시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지극히 크신 주의 능력을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소망을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믿고 순종하는 모든 자녀 위에, 교회 위에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고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행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 사는 일상을 통해 주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사도신경 (Apostles Creed) ..... 다함께
- 성경봉독 (Scripture) ..... 요한계시록 3:7-13 ..... 인도자
- 찬양 (Anthem) ..... 시온성가대
- 말씀증언 (Sermon) ..... 이송원 목사

##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6)

- 봉 헌 (offering) ..... 448장(새 447장) ..... 다함께
- 환영과 소식 (Welcome/Announcements) ..... 인도자
- 찬 송 (Hymn) ..... 399장(새 546장) ..... 다함께
- 축도 (Benediction) ..... 이송원 목사

-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사랑의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 오늘 친교 후 임원회로 모입니다.
- 교우동정
  - 이춘희집사님 : 2주간 출타
  - 담임목사 휴가 : 7월 8일(월)-13일(토)

## 〈기도제목〉

-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며 생명과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거룩한 백성공동체가 되도록.
-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도록.
- 치유와 회복을 위해  
(박현숙성도님, 허영희성도님 시어머님, 조동천선교사님, 이성구목사님, 허춘희권사님, 최은진권사님)

### ◆ 이 달의 속회 적용점 / 요한복음 8:29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이기적인 신앙, 곧 기복주의 종교인이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사랑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사귀는 통해서 누리는 영적이고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삶의 동기와 목적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분의 계명, 곧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율법행위주의에 빠져 ‘자기 의’를 주장하는 교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늘 하나이셨고, 항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먼저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늘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 〈말씀묵상〉 요한계시록 3:7-13

7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8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9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10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1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2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13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내용과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7-10절) 나에게도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까?
2.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며,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11-13절) 나는 내게 주신 능력을 따라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 세상이 점점 첨단 문명화 되어가고 있는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유혹 또한 다양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큰 유혹은 절대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상대적 진리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 진리'라 함은 단순히 타 종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종 미디어와 스마트 기기를 통해 연결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전파되는 새로운 가치와 삶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사탄의 계략이 있으며, 그 중심에는 자아 추구라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기준은 자신의 판단에 있으며, 자신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진리라는 생각이 사람들 안에 심기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소유와 누림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도조차도 이 세대를 본받고 세상을 따르는 흐름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당시의 만연했던 우상숭배와 이단사상,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인내로서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렇게 했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들을 보시는 주님의 흐뭇한 마음이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완벽하고 출중하게 갖추어야 무언가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기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분량이나 강도도 중요하지만 순전함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순전함이란 주님을 향한 사랑에 바탕을 둔 믿음과 신뢰의 순수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말씀은 더 분명히 보일 것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생명과 구원,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순전한 믿음이 있다면 혼돈스런 세상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 사택 (330)388-2814

E-mail : hanmadang@gmail.com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